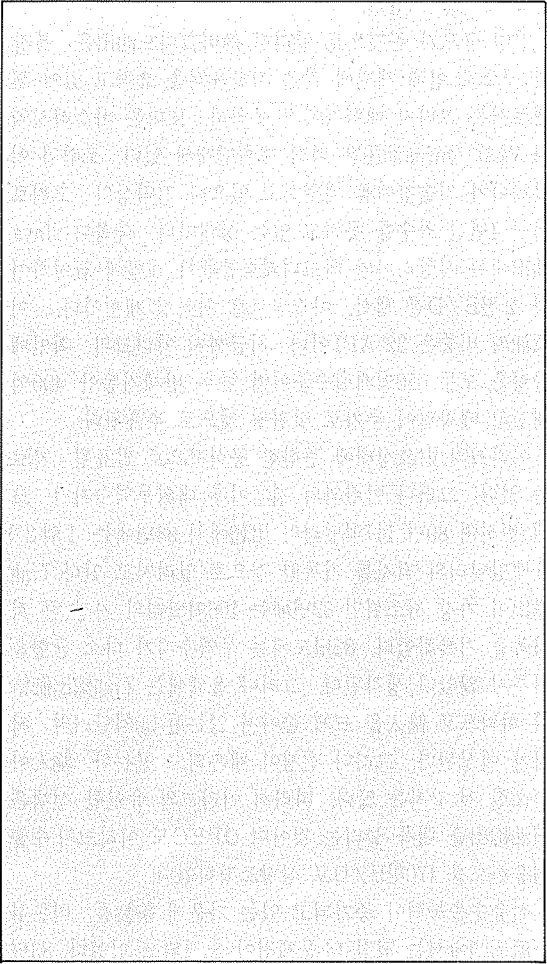


이라크의 석유산업현황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페르시아灣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점점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듯한 가운데 두 당사국인 이란과 이라크의 石油輸出여건은 아주 다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중 하나로 꼽히는 이란의 수출터미널은 전쟁 발발전에는 완전 가동 상태였으나 현재 물동량이 현저히 줄어든 가운데 다른 수출便이 임시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라크는 페르시아灣의 Fao에 위치한 두개의 터미널의 손실과, 한 때 중요한 對지중해의 창구였던 시리아의 역할포기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하부구조는 전쟁전보다 오히려 개선되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만 하더라도 이라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OPEC內 제 2의 산유국이었다. 79년 이라크는 347만 6천B/D생산에 327만 5천B/D를 수출했다. 당시 수출루트이던 페르시아灣岸 미나바크르와 코르알 아마야의 두 터미널이 전쟁의 와중에서 파괴되었고, 시리아경유 파이프라인도 폐쇄되었다. 이라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유일한 수출통로인 교유의 트랜스터어키라인을 통해 50만B/D 규모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었다. 현재 이라크는 크게 부각되어 때에 따라서는 명목상의 용량인 1백만B/D를 초과하여 수송하고 있다. 85년 7월에는 평균 110만B/D를 수송하였고 85년도 평균96만 4천B/D를 수송하였다. 올해에도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높은 이용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라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페트롤라인과의 연결을 통하여 50만 B/D를 수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라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두개의 수출통로로도 OPEC (石油輸出國機構)에 의한 수출쿼터 120만B/D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라크는 현재 35만B/D를 생산하고 있는 紅海연안의 안부精油工場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금도 10만B/D이상의 製品이 요르단과 터어키를 통해 육로로 수출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트랜스터어키를 이용한 루트가 완성되기 전인 18개월 전에는 30만B/D이상의 原油 및 製品이 이 육로로 수송되었다.

현재 이라크는 수출시설 확장을 추진중이기까지 하다. 작년말에는 트랜스터어키라인의 環狀線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 루트를 통한 수출능력은 160만 B/D로 제고된다. 또한 사우디루트의 두번째로 페트롤라인과는 별도로 160만 B/D 능력의 트랜스사우디루트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87년말 이라크의 수출능력이 320

● 전쟁수행으로 外貨부족을 겪고 있는 이라크는 활발한 油田개발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對外原油결제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 ●

만B/D 증가할 것이 확실시 된다.

전쟁수행을 위해 增産필요

따라서 이라크는 외형상으로 석유수출증대에의 장애요인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카셈 아메드타키 石油長官을 고무시켜 그는 산유량을 240만B/D 까지 대폭 증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OPEC의 쿼터시스템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라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이미 한도량을 어기고 있는 마당에 쿼터시스템은 소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계산이 작용하였다. 이라크는 油價하락에 따른 심각한 재정수입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압력을 계속 가할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수행중인 이란과의 전쟁에는 막대한 戰費가 소요되고 있으며 전적으로 石油收入에 의해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240만B/D는 시설규모를 감안할 때 적절한 생산량으로 간주된다. 전에는 남부에서의 새로운 개발에 의해 6백만B/D규모의 시설을 목표로 하였으나 開戰과 더불어 계획이 중지되었다.

신규계획중에는 가장 큰 규모의 하나인 Majnoon 油田이 포함돼 있다. 70만B/D수준의 생산을 목표로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다. 한때는 이란에 의해 점령당한 적이 있으며, 지금은 다시 이라크의 수중으로 돌아왔으나 가까운 시일안에 생산을 재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리적으로 戰線에 매우 근접해 있는 관계로 언제든지 이란의 공격을 당할 취약점을 안고 있다. 근처의 10억 배럴규모의 Nahr'Umr 油田과 함께 Majnoon油田의 발견으로 이라크의 石油매장량은 90억배럴 가까이 증가했다. 가까이 있는 또다른 油田인 Halfaya田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개발상태로 남아있을 것 같다.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다른 이유는 이란의 전진을 저

지하기 위해 低습지인 이곳의 전지역을 인위적으로 침수시켰기 때문이다.

안보상으로 보다 주의를 끄는 곳은 49억배럴의 매장량을 가진 東바그다드油田이다. Snamprogetti社는 3만B/D 생산을 목표로 6천만달러의 합작투자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油田은 10만B/D의 생산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규모가 큰것으로 알려진 西바그다드油田은 복잡한 구조로 인해 개발에 많은 기술축적을 요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다. 또다른 바스라지역의 West Qurna油田은 아직 계획단계에 있다. 소련과 이탈리아가 기술참여를 계획하고 있으나 전략상의 고려로 지난 4년간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북쪽의 sfaya 油田에는 이탈리아의 테크니페트롤社가 개발에 참여하여 약 2천B/D를 생산, 아스팔트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 原油의 비중은 22° API이다. 지금까지 이라크의 확인매장량은 모두 650억배럴수준이며 향후 반세기동안 400억 배럴의 매장량이 추가로 발견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라크의 財政상태에 관한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란과의 전쟁이후 대외무역수지가 크게 변하여 80년 147억달러의 出超에서 84년에는 1억 2천 5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石油輸出이 가장 저조했던 82년에는 106억달러의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였다. 85년도에는 무역수지가 다소 균형을 이루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올해에는 石油輸出價格의 하락으로 輸入을 크게 줄이지 않는한 5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한 輸入이 감소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이라크의 유일한 선택은 石油輸出을 대폭 늘리는 것이며 OPEC도 이라크의 수출허용한도를 170만B/D로 상향조정하였다.

석유수출능력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精製를 비롯한 下流部門에서는 점점 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었다. 83년

까지 精製능력은 거의 內需수준인 20여만 B/D였다. 여기에 83년 Baiji정유공장이 가동을 시작하여 정제능력 15만B/D가 추가되었다. 製品에 있어서 輕質油와 中間製品은 內需를 커버하고 있으며, B-C油는 대략 10만B/D 정도가 남아 터키와 요르단을 통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현재 Baiji에서는 연간 25만톤규모의 유회유공장이 건설중에 있다. 함께 생산될 輕質溜分은 수출로 돌려질 예정이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주로 피해를 당한 곳은 石油化學부문이다. 開戰당시 방대한 프로젝트가 추진중에 있었다. 이들 플랜트의 대부분은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 또는 신규개발 油田의 가스를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페르시아灣의 Khor al Zubayr에 있는 터미널을 통해 전량 수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쟁발발과 더불어 이들 플랜트들은 반쯤 건설되다 만채 중단되어 있다.

그 결과 石油化學의 중심지가 북부 및 서부로 이동하고 있다. 현재 Mosul 근처 Ash Shura에 하루 2000톤의 암모니아와 3천5백톤의 尿素생산을 위한 화학단지건설이입찰중이다. 총소요비용은 6억6천만달러로 추정되며, 건설대금은 原油로 지불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또한 Baiji에 하루 1,000톤의 암모니아와 1,700톤의 요소생산을 위한 2억7천5백만달러규모의 공장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이 설비는 켈로그사가 설계를 맡고 히다찌조센과 니쇼이와이가 건설을 담당할 예정이다.

Baiji에는 또한 8500만달러규모의 洗劑공장이 이탈리아의 테크니페트롤社와 체코슬로바키아의 테크노익스포트社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이들 북부에 위치한 공장들은 전적으로 국내수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남부 페르시아灣의 공장들이 수출용인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天然가스의 이용계획

天然가스의 활용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남부 油田으로부터 약간의 수반가스가 지난달 쿠웨이트로 수출을 시작하였다. 그외 다른 계획들은 대부분 석유화학시설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것들이다. 현재 發電所 및 시멘트제조 등과 같은 에너지집약산업의 연료로써 수반가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개체작업이 진행중이다. 남부 油田으로부터 바그다드 근처 무사이브에 이르는 500km의 최초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소련의 Tsvestmetpromexport에 의해 건설될 예정이며, NGL分溜공장이 West Qurna지역에 건설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West Qurna 油田의 개발이 전쟁때문에 중단되고 있어 가스플랜트의 건설도 당초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에 이르는 발전소와 시멘트공장들은 이지역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남부의 Khor al Zubayr와 북부의 Kirkuk를 잇는 NGL 파이프라인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900km에 달하는 이 가스라인은 국토의 從으로 뻗어있는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하면서 가스를 공급할 예정인데, 당초에는 Kirkuk 油田으로부터 공급받을 계획이었으나 양쪽 어디서나 공급이 가능하다. 한편 Kirkuk에서 서쪽으로 뻗어 터키까지 이어지는 NGL 파이프라인은 불분명한 이유로 건설이 연기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해결해야할 큰 문제는 이들 장기계획의 소요비용 조달문제이다. 石油收入의 감소로 外貨부족을 겪고 있는 이라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原油결제이다. 그러나 이라크는 전쟁이 끝나 原油생산이 궤도에 오르고 국제석유가격이 안정을 찾기 전에는 막대한 石油 및 가스매장량을 충분히 개발할 수 없을 것이다. ☒

(피트롤리엄 이코노미스트 86·6월호)

낭비없는 알뜰피서

약속되는 밝은내일